

接 頭 辭 小 考

姜 榮 峯

차 례

- 1, 들어가는 말
- 2, 접두사의 개념
- 3, 종류 및 분류
- 4, 관형사와의 관계
-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言語는 社會의 소산이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一定한, 約定된 方法에 依해 그네들의 思想, 感情이 傳達되고 理解되는 것이다. 傳達되고 理解되는 過程에 있어서 言語가 精確하고 共通된 意味를 갖고 있다면 言語 使用者들은 그렇게 망서리지 않아도 圓滿하게 言語를 驅使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精確하게 理解가 되어 行動을 取하게 된다.

그러나 因習에 依해 制定된 內容과 形式을 가지고 自己를 理解시키고 相對方으로 하여 一定한 狀況에서 思考하고 行動하게 하려면 우선은 因習을 알맞게, 精確하게 지키는 일밖에 없으며 또한 잘못된 因習이 있을 때는 뜯어 고쳐 言語 使用者 口味에 맞게 精確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記述하려는 接頭辭만 하여도 그러하다.

接頭辭 職능이 <加意的인 것>¹⁾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種類 分類에도 意味를 中心으로 해서 分類가 되어야 할 것이다. 文法書 대개가 환경자질

1) 최현배 : <우리말본 p.659>

에 의한 분류만을 하고 있으며, <우리말본>에서도 환경자질에 의한 分類를 하고 있으나 그 밑에 다시 의미를 中心으로 너무 작게 분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言語使用者로 하여금 言語生活을 흐리게 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① 意味를 中心으로 分類할 때에 共通的이면서도 包括的으로 分類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과, <관형사성 접두사>²⁾란 用語가 提示하는 것과 같이 관형사와 接頭辭는 그 한계가 애매하다. ② 관형사와 接頭辭를 한계 짓는 피상적인 방법 말고는 없을까? 하는 점에 對해 記述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를 밝히기 爲해서는 接頭辭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接頭辭 概念부터 알아야 할 것이며, 환경자질에 따른 分類, 意味에 따른 分類 以前에 그 種類를 알아보고 난 然後에 分類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끝으로 관형사와의 관계도 밝혀야 되겠기에 이와같은 順으로 記述해 가겠다.

2, 接頭辭의 概念

接頭辭의 概念을 알아보기 前에 接頭辭가 어떠한 것인가부터 알아보자.

<우리말본>에 보면 接頭란 (얼마 만 큼 따로 떨어져서 遊離性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능히 제 홀로 서서 直接的으로 일을 구성하는 材料의 獨立體가되지 못하고 다른 씨의 한 部分이 되어 그 씨의 으뜸 조자를 여러 가지로 돕는 것을 말한다)³⁾라고 되어 있다.

또 그 職分을 보면 <加意的인 것>, <造語의인 것>, <調音의인 것>⁴⁾으로 三分하고 있다.

<國語學概說>에는 <單語의 內部的 變化를 일으키는 일은 없으나 그 單語에 獨立性이 없는 다른 말을 添加하여 그와 類似한 새로운 意味를 가진

2) 이희승: <국어학개설 p. 262>

3) 최현배: <우리말본 p. 657>

4) 최현배: <우리말본 p. 659>

한개의 單語를 成立시킬 경우에 그 새 單語가 外的 派生語이고, 그 原 單語를 基語라고 하며, 添加되는 獨立性이 없는 말을 接語(辭)라고⁵⁾ 한다.

그러니깐 대체로 接辭란 <單語에서 核的인 要素에 添加的 形式으로 분포하고 있는 非語根的 구속형>⁶⁾을 말한다.

單語 形成 즉 造語法에 있어서 1對 1의 관계에 있는 말이 綜合되어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 때를 合成語라고 하며 X對 1의 관계에 있는 말이 연결되어 새로운 말을 形成할 때를 複合어라 한다. 이때 X가 바로 接辭라고 볼 수 있다. 接辭가 核的인 기본 單語에 添加되어 다시 새로운 單語를 派生시킨다면 이 때 添加된 接辭를 派生接辭라고 하며 새로운 單語 派生이 불가능하며 單語의 文法的 의미를 添加하는 接辭를 굴골잡(미)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論할려고 하는 것은 派生接辭 中에서도 接頭辭 뿐이다.

그런데 <국어구조론>에 따르면 接辭의 기능을 <(1), 어떤 單語 또는 語幹에 붙거나, 혹은 잇달아 添加되면서 그 單語를 變形시키거나, (2),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3), 문장 全體에 변형 구조를 支配하는 영향>⁷⁾을 준다고 하였다.

接辭가운데서도 위 (2), (3), 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接辭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接頭辭인 것이다. 이 接頭辭는 基本形을 달리 變形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單語로 派生시킬 뿐이다.

그러니깐 接頭辭란 接辭의 한 種類로써 基本 單語에 添加되어 派生語를 만드는 接辭이며, 이미 있는 기본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獨立性이 없는 單語에서 核的인 要素에 添加的 形式으로 단어 앞에 붙는 非語根的 구속형을 말한다고 우선은 정의해 두고자 한다.

5) 이회승: <국어학개설 p.262>

6) 김석득: <국어구조론 p.5>

7) 김석득: <국어구조론 p.3>

3 種類 및 분류

여기서는 調査한 1954個의 접두사를 나열하고 그것이 ① 환경자질 즉 명사 앞에 놓이느냐, 動詞, 形容詞 앞에 놓이느냐, 副詞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 分類하고 다시 ② 의미에 따른 種類로 分類해 보겠다.

(A) 種 類

- 1) {가(假)—} : 가매장, 가기자, 가형사, 가결의
- 2) {가막(까막)—} : 가막조개, 까막눈, 가막판자
- 3) {각(各)—} : 각학급, 각도(各道)
- 4) {간(乾·乾)—} : 건전지, 건포도, 건대구
- 5) {간—} : 간밤
- 6) {깎—} : 깎보다
- *7) {갓—} : 갓스물, 갓마흔, 갓나다
- 8) {강—} : 강추위, 강호령
- 9) {갯—} : 갯두루마기, 갯바지, 갯옷
- 10) {개—} : 개떡, 개죽음, 개머리
- 11) {갯—} : 갯바람, 갯보리, 갯완두
- *12) {걸—} : 걸가죽, 걸곡식, 걸꾸리다, 걸맞추다
- 13) {겹—} : 겹눈, 겹치마, 겹받침
- 14) {결—} : 결눈질, 결가지, 결들이다
- 15) {고—} : 고성능, 고속도
- 16) {곶—} : 곶농다, 곶살다
- 17) {공(公)—} : 공기업, 공소유권
- 18) {경(輕)—} : 경기관총, 경장잡차
- 19) {구(舊)—} : 구식, 구세대, 구시가
- 20) {군—} : 군더더기, 군음식, 군소리

- 21) {귀(貴)-} : 귀사(貴社), 귀금속, 귀학회
- 22) {극(極)-} : 극비밀, 극상품
- 23) {나-} : 나타나다, 나서다, 나가다
- 24) {난(難)-} : 난공사, 난문제
- 25) {날-} : 날고기, 날김치, 날벼락
- 26) {남-} : 남동생, 남학생
- *27) {낫-} : 낫도깨비, 낫도적, 낫보따
- 28) {내-} : 내놓다, 내차다, 내딘지다
- 29) {내(來)-} : 내주일, 내달, 내학기
- 30) {내(內)-} : 내교섭, 내분비
- 31) {내리-} : 내리굿다, 내리찍다
- 32) {넋-} : 넋손자, 넋할머니
- 33) {노-} : 노총각, 노처녀
- 34) {논-} : 논스톱, 논프로
- 35) {농(濃)-} : 농질산, 농아황산
- *36) {늦-} : 늦더위, 늦바람, 늦되다
- 37) {다가-} : 다가놓다, 다가서다, 다가붙다
- 38) {단(短)-} : 단거리, 단발, 단수로
- *39) {담(淡)-} : 담홍색, 담하다
- 40) {당(唐)-} : 당모시, 당사향, 당책
- 41) {당(堂)-} : 당형제, 당숙질, 당고모
- 42) {당(當)-} : 당사회, 당열차
- 43) {대-} : 대번에, 대마더에
- 44) {대(大)-} : 대소동, 대도시, 대규모
- 45) {대(貸)-} : 대접포, 대가(家)
- 46) {떠-} : 떠나다, 떠들다, 떠돌다
- *47) {덧-} : 덧신, 덧버선, 덧나다, 덧신다
- 48) {독(獨)-} : 독살림, 독차지

- *49) {돌—} : 돌보다, 돌보기
- 50) {돌—} : 돌미 나리, 돌배, 돌눔
- 51) {되—} : 되짚다, 되물다
- 52) {데—} : 데살기다, 데리다
- 53) {둘—} : 둘암소, 둘암탕
- *54) {들—} : 들깨, 들국화, 들부수다, 들볶다
- 55) {덩—} : 덩달아, 덩뚜렷이
- 56) {드—} : 드높다
- *57) {막—} : 막내, 막둥이, 막잡다
- 58) {말—} : 말아들, 말며느리
- 59) {말—} : 말매미, 말개미, 말벌
- *60) {맞—} : 맞벌이, 맞바둑, 맞농다, 맞걸다, 맞서다, 맞바꾸다
- 61) {매—} : 매일반, 매한가지
- 62) {매(每)—} : 매주일, 매시간, 매달
- 63) {맨—} : 맨손, 맨입, 맨주먹
- 64) {맹—} : 맹훈련, 맹공격
- *65) {메—} : 메조, 메수수, 메마르다, 메뜨다, 메떨어지다
- 66) {멤—} : 멤쌀
- 67) {명—} : 명배우, 명탐정
- 68) {목(木)—} : 목활자, 목다리
- *69) {몰(沒)—} : 몰인정, 몰이해* 몰상식, 몰박다, 몰밀어내다
- 70) {무(無)—} : 무감각, 무자비, 무관심
- 71) {미(未)—} : 미완성, 미도착
- 72) {민—} : 민머리, 민며느리
- 73) {민둥—} : 민둥산
- 74) {박—} : 박대, 박정
- 75) {반(半)—} : 반식민지, 반병어리, 반죽음
- 76) {반(反)—} : 반작용, 반국가적

- 77) {발(發)—} : 발사돈, 발주인
- 78) {배(배)—} : 배내똥, 배내웃
- 79) {범(汎)—} : 범국가적, 범인류적
- *80) {별(別)—} : 별문제, 별천지, 별나다
- 81) {복(複)—} : 복소수, 복군절
- 82) {본(本)—} : 본남편, 본마음, 본집
- 83) {부(不)—} : 부도덕적, 부정확
- 84) {부(副)—} : 부사장, 부시장, 부산물
- 85) {불(不)—} : 불완성, 불기소, 불공평
- 86) {불(不)—} : 불당기다, 불박이, 불따르다
- 87) {비(非)—} : 비인정, 비과학적, 비정상
- 88) {빗(不)—} : 빗나가다, 빗맞다, 빗먹다
- 89) {사(私)—} : 사생활, 사경제
- 90) {새(새)—} : 새 까맣다, 새 하얗다, 새 파랗다
- 91) {셋(三)—} : 셋노랑다
- 92) {생(生)—} : 생트집, 생나무, 생쌀
- 93) {서(熙)—} : 서누이, 서동생, 서삼촌
- 94) {선(善)—} : 선떡, 선무당, 선웃음
- *95) {설(雪)—} : 설쌌다, 설다루다, 설익다, 설늪은이
- 96) {성(聖)—} : 성모, 성마을
- 97) {소(小)—} : 소도시, 소시민, 소규모
- 98) {쇠(鐵)—} : 쇠벼루기, 쇠물피, 쇠고기
- 99) {수(水)—} : 수탑, 수캐
- 100) {순(純)—} : 순종, 순국산, 순이익
- 101) {숫(數)—} : 숫총각, 숫처녀
- 102) {시(時)—} : 시떨정다, 시퍼렇다
- 103) {시(媿)—} : 시부모, 시고모, 시동생
- 104) {신(新)—} : 신무기, 신시대, 신무기

- 105) {깃-} : 깃누렁다
- 106) {실(實)-} : 실수입, 실비용
- 107) {실(實)-} : 실기본, 실성, 실언
- 108) {아(亞)-} : 아열대
- 109) {악(惡)-} : 악순환, 악취미, 악영향
- 110) {알-} : 알꼭식, 알몸, 알속
- 111) {암-} : 암소, 암캐
- *112) {애-} : 애호박, 애파리, 애짚다, 애빨다
- 113) {알-} : 알밋다, 알긋다, 알망스럽다
- 114) {양(養)-} : 양부모, 양녀, 양아들
- 115) {양(洋)-} : 양담배, 양배추
- 116) {양(兩)-} : 양국가, 양도시
- 117) {알- } : 알보다, 알잡다
- 118) {안-} : 안사돈, 안주인
- 119) {어(御)-} : 어명, 어갑주, 어의대
- 120) {어(於)-} : 어창경원
- *121) {얼-} : 얼간이, 얼치기, 얼버무리다, 얼치다
- *122) {엇-} : 엇세, 엇결, 엇가다, 엇결리다, 엇먹다, 엇나가다
- 123) {연-} : 연사흘, 연이틀
- 124) {열-} : 열무, 열중이
- 125) {옛-} : 옛보다, 옛듣다
- 126) {영(令)-} : 영부인, 영제, 영애
- 127) {오-} : 오사리, 오조
- *128) {울-} : 울벼, 울콩, 울되다, 울차다
- 129) {옥-} : 옥포, 옥담, 옥야
- 130) {옹-} : 옹술, 옹자배기, 옹생원
- 131) {왕-} : 왕개미, 왕고모, 왕거미
- 132) {외(外)-} : 외삼촌, 외조부, 외할머니

- 133) {외(外)-} : 외나무다리, 외아들, 외딸
 134) {우(右)-} : 우심방
 135) {웃(笑)-} : 웃어른, 웃거름, 웃웃
 136) {위(僞)-} : 위군자, 위군사
 137) {윗(上)-} : 윗자리, 윗입술
 138) {유(有)-} : 유자격자, 유공중
 139) {의(義)-} : 의형제, 의부
 140) {익(益)-} : 익삼월, 익일
 141) {일(一)-} : 일깨다, 일심다, 일떠나다
 142) {자(子)-} : 자10일~
 143) {잔(殘)-} : 잔결음, 잔돈, 잔소리
 144) {잡(雜)-} : 잡문서, 잡손질, 잡늬
 145) {жат(戔)-} : 잣벼개, 잣주름
 146) {장(長)-} : 장거리, 장시간
 147) {재(在)-} : 재조정, 재침략, 재출발
 148) {저(低)-} : 저기압, 저소득
 149) {전(全)-} : 전국민, 전세계
 150) {전(前)-} : 전장관, 전남편
 151) {정(正)-} : 정밤중, 정복관, 정말
 152) {제(第)-} : 제일이다, 제일과
 153) {존(尊)-} : 존안(尊顏), 존체(尊體)
 154) {좁(窄)-} : 좁도둑, 좁늬
 155) {종(從)-} : 종일품, 종형제, 종조부
 156) {주(主)-} : 주공식, 주식
 157) {준(準)-} : 준교사, 준공무원
 *158) {출(出)-} : 출잡아, 출났다
 159) {중(重)-} : 중공업, 중기관총
 160) {지(止)-} : 지18일

- 161) {진(眞)-} : 진면목, 진범인 .
- 162) {짓-} : 짓구기다, 짓궂다, 짓밟다
- 163) {차-} : 차조, 차돌, 차수수
- 164) {찰-} : 찰벼, 찰밥, 찰떡
- 165) {참-} : 참사랑, 참기름, 참떡, 참깨
- 166) {참-} : 참쌀
- 167) {처-} : 처먹다, 처박다, 처바르다
- 168) {첫-} : 첫날, 첫눈, 첫아들
- 169) {청(靑)-} : 청사진, 청포도
- 170) {초-} : 초하루, 초저녁, 초겨울
- 171) {초(超)-} : 초인간, 초음속, 초만원
- 172) {총-} : 총공격, 총파업
- 173) {최(最)-} : 최고급, 최우수, 최상급
- 174) {치-} : 치밀다, 치받치다, 치감다
- 175) {친(親)-} : 친아버지, 친누이, 친동생
- 176) {퍼-} : 퍼붓다
- 177) {풋-} : 풋사랑, 풋김치, 풋나물
- 178) {풍-} : 풍년, 풍요
- 179) {한-} : 한여름, 한겨울, 한복판
- 180) {햇-} : 햇웃, 햇아비, 햇이불
- 181) {항(抗)-} : 항히스타민제
- 182) {해-} : 해몽, 해암탕
- 183) {해-} : 해은행, 해공장
- 184) {햇-} : 햇수수, 햇팔
- 185) {허(虛)-} : 허언, 허식, 허폐
- 186) {헛-} : 헛기침, 헛공론, 헛보다, 헛듣다
- 187) {헤-} : 헤덕다, 헤벌리다, 헤식다
- 188) {현-} : 현시대, 현시점

- 189) {호(好)-} : 호경기, 호시절
 190) {호(胡)-} : 호배추, 호롱
 191) {홀-} : 홀어머니, 홀아비
 192) {홀-} : 홀웃, 홀이불, 홀쩍레기
 193) {후(後)-} : 후백제, 후문
 194) {휘-} : 휘감다, 휘두르다, 휘젓다
 195) {흥-} : 흥년, 흥작

(* 표는 체언 앞, 용언 앞에 두루 쓰이는 것)

(B) 分 類

(1) 환경자질에 의한 分類

환경자질에 依해 分類하면 ① 명사와 연결되는 것 ② 用言과 연결되는 것 ③ 부사와 연결되는 것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접두사+명사

{가-, 가막-, 각-, 전-, 갓-, 강-, 갖-, 개-, 갯-, 걸-, 겹-,
 一, 곁-, 고-, 공-, 경-, 구-, 군-, 귀-, 극-, '난-, 날-,
 남-, 낫-, 내-, 녀-, 낫-, 노-, 논-, 농-, 단-, 담-, 당-
 대-, 덧-, 독-, 돈-, 돌-, 들-, 들-, 막-, 만-, 말-, 맞-
 매-, 맹-, 맨-, 메-, 멍-, 명-, 목-, 무-, 미-, 민-, 민둥-
 一, 박-, 반-, 발-, 배내-, 범-, 벌-, 복-, 본-, 불-, 부-
 붙-, 비-, 사-, 서-, 선-, 설-, 성-, 소-, 쇠-, 수-, 순-
 솟-, 시-, 실-, 신-, 아-, 악-, 안-, 알-, 암-, 양-, 어-
 얼-, 엇-, 연-, 열-, 영-, 오-, 울-, 응-, 왕-, 외-, 우-
 유-, 웃-, 윗-, 의-, 익-, 자-, 잔-, 잡-, 잣-, 장-, 재-
 저-, 전-, 제-, 정-, 존-, 줌-, 종-, 주-, 준-, 중-, 지-

8) 대부분 문법서가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희승 <국어학개설>에서는 <관형사성 접두사>, <부사성 접두사>로 나누고 있다.

진-, 차-, 찰-, 참-, 찹-, 칫-, 청-, 초-, 총-, 최-, 친-
 쫓-, 풍-, 한-, 핫-, 항-, 해-, 헛-, 허-, 헛-, 호-, 현-
 후-, 흘-, 흘-, 흥-}

② 접두사+용언

{갈-, 갓-, 결-, 결-, 곱-, 나-, 내-, 내리-, 늦-, 다가-,
 담-, 떠-, 덧-, 돈-, 되-, 데-, 들-, 갓-, 메-, 물-, 벌-
 붙-, 벗-, 새-, 셋-, 실-, 시-, 싹-, 퍼-, 애-, 알-, 알-
 일-, 엇-, 엇-, 일-, 즐-, 짓-, 처-, 치-, 헛-, 헤-, 휘-}

③ 접두사+부사

{당-, 외-}

(2) 意味에 依한 分類

接頭辭의 職能을 볼 때 <加意的인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分類에 있어서도 意味에 따른 分類가 앞서야 될 것이다.

<우리말본>에 보면 (1)과 같이 分類한 다음에 그 意味에 따라 자질구레하게 분류⁹⁾하고 있어 言語 使用者들에게 부담만을 주고 있는 것 같다. 言語가 사회적 소산이기 때문에 使用者 口味에 맞아야 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共通性이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이 그 主된 目的이고 가치라고 한다면, 言語를 정확하게 使用해야 되며 빠르고 정확하게 理解하여 行動에 지장이 없도록 言語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點을 감안할 때 복잡하게 분류해서 使用者로 하여금 망서리게 해석하는 안되겠기에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分類되어야 할 것이다.

① 時 間

{간-, 갓-, 구(舊)-, 낫-, 내(來)-, 늦-, 당(當)-, 데-, 되-
 막-, 만-, 매(每)-, 신(新)-, 아(亞)-, 애-, 연-, 오-, 올-
 익-, 일-, 장(長)-, 단(短)-, 자-, 재(再)-, 제(第)-, 지-,
 -, 초(初)-, 해-, 헛-, 현-}

9) 최현배: <우리말본 p.661~669>

② 强 勢

{가막(一), 강(一), 경(輕)一, 고(高)一, 극(一), 난(一), 논(一), 능(一), 담(一), 대(大)一, 돌(一), 들(一), 드(一), 말(一), 맹(一), 명(一), 범(一), 박(薄)一, 별(別)一, 새(一), 셋(一), 시(一), 싯(一), 옥(沃)一, 왕(一), 잔(一), 주(主)一전(一)줄(一), 중(重)一, 짓(一), 처(一), 청(靑)一, 초(超)一, 총(總)一, 최(最)一, 치(一), 풍(豐)一, 헤(一), 호(好)一, 흉(凶)一, 휘(一)}

③ 否 定

{가(假)一, 개(一), 갯(一), 날(一), 노(一), 네(一), 몰(沒)一, 무(無)一, 미(未)一, 반(反)一, 불(不)一, 부(不)一, 비(非)一, 생(生)一, 선(一), 설(一), 실(失)一, 실(實)一, 위(一), 유(一), 응(一), 잔(一), 정(正)一, 진(眞)一, 준(準)一, 참(一), 풋(一), 항(一), 후(一), 허(虛)一}

④ 種 族

{넛(一), 남(一), 당(堂)一, 둘(一), 서(庶)一, 수(一), 솿(一), 시(媿)一, 안(一)암(一), 양(養)一, 외(外)一, 의(義)一, 종(從)一, 친(親)一}

⑤ 動 作

{걸(一), 나(一), 내(一), 내리(一), 다가(一), 덩(一), 덧(一), 떠(一), 맞(一), 벗(一), 붙(一), 알(一), 엇(一), 퍼(一), 헛(一)}

⑥ 尊 卑

{갈(一), 개(一), 귀(貴)一, 성(一), 소(小)一, 알(一), 알(一), 어(御)一, 일(一)영(令)一, 저(低)一, 존(尊)一, 줌(一)}

⑦ 場 所

{당(唐)一, 말(一), 갯(一), 배내(一), 본(本)一, 걸(一), 양(洋)一, 우(一), 웃(一), 윗(一), 해(該)一, 호(胡)一}

⑧ 孤 立

{각(各)一, 건(乾)一, 겹(一), 곱(一), 군(一), 독(一), 맨(一), 목(木)一, 민(一)민둥(一), 북(一), 순(純)一, 솿(一), 양(兩)一, 외(一), 잡(雜)一, 탓(一), 홀(一), 홀(一)}

⑨ 農 事

{에-, 명-, 차-, 찰-, 참-}

⑩ 衣 類

{갓-, 핫-}

⑪ 其 他

{공(公)-, 대(貸)-, 사(私)-, 쇠-}

以上 意味를 中心으로 分類해 보았다.

①의 時間에는 “時間”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순번”까지도 포함을 시켰으며 ②의 強勢에는 “정도의 強弱”, “함부로”, “굉장하게”, “무게”, “특별”等 여러 意味가 內包되고 있으며 ③의 否定에도 “否定”은 물론 “공정”, “덜 완성된”, “진정한”, “거짓이 없는” 뜻을 內包한 接頭辭가 포함되어 있으며 ④의 種族의 항에도 “성별”을 나타내고 있는 意味를 갖고 있는 접두사까지 包含시켰으며 ⑤의 孤立에도 “홀로의 뜻”과 “아무 不純物이 섞이지 않은” 뜻을 包含하는 接頭辭까지도 包括하고 있다. 그리고 ⑨의 農事는 농작물에 연결되고 있어 따로 항목을 마련해 처리해 버렸다.

위에서 分類한 항목은 그 항목을 대표하고 있는 뜻만 갖고 있는 接頭辭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와 類似한 뜻, 반대 되는 뜻까지 포함을 시켰다. ③의 否定 항에는 “부정”의 뜻만 갖고 있는 接頭辭를 分類, 設定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정”의 뜻 “익숙하지 못한”, “모자라는” 뜻까지 包含한 接頭辭도 否定의 항에 같이 처리해 버렸다.

4. 관형사와의 관계

學者에 따라 꼭 같은 言語形式을 가지고 관형사에도, 接頭辭에도 귀속시키고 있다. 漢字語인 경우에는 더욱 난잡하여 統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관형사와 접두사는 그 분포 상황, 구조가 같기 때문에 어디에다 귀속을 시키느냐 망설이게 된다. <관형사성 접두사>란 用語가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데 피상적이거나 구별이 되어야 하겠다.

接頭辭의 概念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 있고, 여기서는 관형사에 대해 알아보고 그 구별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관형사란 <體言의 앞에서 그 體言이 어떠한 것인가 수식하는 것>¹⁰⁾이며 <體言처럼 助詞가 붙거나 用言처럼 語尾活用을 하는일이 없으며 文中에서 반드시 관형어에만 쓰이는 것>¹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접두사와의 관계에서 그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즉 그 구성요소를 접두사로 볼 때 一字로 되어 있으며 관형사는 대부분이 二字以上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관형사는 하나의 獨立 품사로 인정하여 띄어 쓰나 接頭辭는 그러지 못하다는 점, 다른 말과 호응 관계도 관형사는 광범한 데 비해 接頭辭는 제한이 되어 있고, 接頭辭는 用言에도 연결되나 관형사는 體言만을 수식한다 등으로 구별¹²⁾하고 있다.

<국어형태론>에서 이 두 구별을 <대치의 범위>, <확대의 가능성 여부> 그리고 <연접>을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접>이 <유사한 한정기능과 성분구조 관계를 가지는 접두사와 관형사를 分別해 주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¹³⁾고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예이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에서 {가}가 앞에 연결되느냐, 뒤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意味가 확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연접>으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닌가 한다.

<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 句와 句 사이 등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言語生活을 할 때 정확하게 뜻을 傳達하고 정확하게 理解하기 위해서 單語와 單語 사이, 句와 句 사이를 分明하게 한계를 지워야

10) 최현배 : <우리말본 p.574>

11) 한국어학회편 <국어학개론 p.17>

12) 대부분 고등학교 문법서

13) 김석득 : <국어형태론>, <연세논총 4 집 p.32>

한다. 위의 예가 바로 이 한계를 무시한데서 招來되는 結果라고 본다.

이 연결은 그 根源을 D. Jones의 “Pauses”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¹⁴⁾

“Pauses are continually made in speaking. They are made chiefly ① for the Pauses of taking breath, ②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meaning of the words clear”라고 하였다.

이것은 生理學的으로는 호흡을 하기 爲한 것이며 言語學的으로 볼 때는 意味를 鮮明하게 하기 爲해서 Pauses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古語에서도 이 Pauses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다. “피여 爲我愛人而 피여 爲人愛我”에서 <“피여 [kujjə]”는 一種의 interlude로 /j/를 보여 주는 것인데 反해 “피여[kujjə]”는 두 /j/ 사이에 Pauses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¹⁵⁾으로 보고 있다. 이 Pauses 즉 juncture Phoneme이 있음으로 해서 意味가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juncture가 意味 구별을 하고 있어 音素로 인정될 때 接頭辭와 관형사 구별이 容易하다고 본다.

“맨 처음, 맨 꼭대기, 맨 책이다”에서의 {맨}과 “맨입, 맨손, 맨주먹” 등에서 {맨-}과 區別이 된다는 것이다. 前者의 例에서 {맨}은 다음 單語 사이에 juncture가 있어 즉 폐쇄형태로서 관형사가 되며, 後者の 例는 {맨-}과 다음 單語 사이에 juncture가 없어 즉 개방형태이기¹⁶⁾ 때문에 접두사가 되는 것이다. 前者의 意味는 “最·全”의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後者는 “有虛”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 “물 한 그릇”과 “반그릇”에서 前者의 {한}은 수사 “하나”에서 온 관형사형이고 後者の {반-}은 “하나가 못되는, 半에서 온 접두사이다”.

관형사와 接頭辭 區別은 juncture로 쉽게 區別될 수 있다. 그러면 漢字

14) 김태환, 김태환 <영어음소론 p.134>

15) 김완진 : <한국어 발달사>, 高大民族문화연구소刊 <한국문화사대계 V p.132>

16) 김석득 : <국어형태론> <연세논총 4 집 p.33>

語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問題가 남아 있다.

〈우리말본〉에 보면 〔귀(貴), 몰(沒), 총(總)] 등은 接頭辭로 다루고 있으며 〔진(眞), 호(好), 순(純), 신(新), 구(舊)] 등은 관형사로 다루고 있다.¹⁷⁾

어느 한 쪽으로 쏠려도 無妨한 漢字語를 구태여 따로 취급할 必要가 있을까? “主攻擊, 好時節, 純利益” 등이 “主된 攻擊, 좋은 時節, 純粹한 利益”과 같이 表記할 때는 관형사이지만 그렇지 않은 한 接頭辭로 一括시켜야 되겠다.

“主 攻擊”과 “主攻擊” “好 時節”과 “好時節” “純 利益”과 “純粹利益”에서 무슨 差異가 있을까? 차이가 없다면 當然히 同一하게 取扱여서 接頭辭로 보아야겠다. juncture로서 이 구실을 다 못하기 때문이다.

5. 맺 음 말

서둘지만 接頭辭에 대해 단편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以上の 것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接頭辭은 獨立性이 없는 要素가 添加의 形式으로 單語 앞에 연결되는 非語根的 구속형으로 파생어를 生成하는 接辭를 말한다.

② 接頭辭 기능이 〈加意的인〉 것이라면 그 分類도 意味를 중심으로 分類해야 하며 그렇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時間, 強弱, 否定, 種族, 動作, 尊卑, 場所, 孤立, 農事, 衣類, 其他.

③ 관형사와 접두사 差異 區別은 juncture로 식별할 수 있다. 즉 개방 형태이면 접두사, 폐쇄 형태이면 관형사가 된다. (4년)

參 考 文 獻

崔鉉培: 우리말본 (경음사 1971)

.17) 최현배: 〈우리말본 p.580〉

李熙昇：國語大辭典

※：國語學概說 (민중서관 1971)

金亨奎：國語學概論 (일조각 1960)

韓國英文學會編：國語學概論 (형설 1971)

金碩得：國語構造論 (연세 1971)

※：國語形態論 (연세논총 4집 1966)

金泰漢：英語音素論 (형설 1970)

金泰煥

金完鎭：韓國語發達史下(韓國文化史大系Ⅴ)